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I)

출제 의도

1. 전반적인 출제의도 및 특징

2016학년도 본교의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코자 하였다. 논술고사 출제의 출발점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술의 출발점을 삼았으며, 수험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제시문들의 내용과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원하는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 수록된 동서고금의 고전이나 양서, 통계자료나 가상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기존의 교과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응용능력을 배양해왔는지를 측정코자 하였다.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육과정 내에 집약함으로써 별도의 선행지식이나 교과외 과정에 대한 부담 없이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2. 문제의 구성

본교의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의 성격을 지닌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인문학적 이해능력과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며, 이에 더하여 통합적 사고, 비교 및 대비 능력, 표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논술고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인문계열 II의 논술고사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2문항과 논리적 추론능력을 묻는 1문항을 포함한 총 3문항이 출제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 논술고사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평소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올바르게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016학년도 논술고사에서는 인문계열 II의 경우 정복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인디언 보호구역 사례, 대일 투쟁을 위한 상소문 사례, 그리고 기미독립선언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이들 각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술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였다. 또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정치철학적 차이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상실로 고뇌하는 실제의 사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질문도 제기되었다. 논리적 추론능력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세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개념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간단한 수치와 함께 물어보았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 근거

1. 제시문

인문계열 II 제시문 개관

2016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II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민족과 국가처럼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보호막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들에게 있어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제시문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인디언 보호구역을 설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인디언들의 절박한 목소리,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하여 투쟁을 호소하는 호소문, 그리고 한층 더 포용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미독립선언문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과에서 다루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 어떤 편차를 보이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교과서의 문단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전쟁 종전 당시 부득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중립국행을 택하는 소설 속의 주인공의 선택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미국 인디언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이다. 1855년 미국의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부족이 거주하는 땅을 산 후 그들은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옮겨주겠다는 강요된 제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담대하게 밝히고 있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II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2	52-53

2)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1905년 고종에게 을사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곽종석(1846~1919)의 상소문이다. 일본의 신복이 되지 말고 함께 목숨을 바치자는 결의와 함께 서구 열강이 만국공법에 따라 도와줄 것을 낙관론적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II	윤여탁 외	㈜미래엔	2012	196-197

3)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이다.

3.1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비폭력 평화운동을 지향하면서 조선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상)	김대행 외	천재교육	2011	116-123

4)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서구 자유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 자유주의가 전통적인 신분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정치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 역시 자연법적 전통에 의거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내면의 합리성과 선택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적용 교육과정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덕(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4	213-214

5) 제시문 [마]

제시문 [마]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철학자 매킨타이어의 주장을 담고 있다. 어떤 개인이건 간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로부터 부과되는 문화적 유산과 기대를 물려받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달려 있다고 봄으로써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간 개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본다는 특징을 보인다.

적용 교육과정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	박병기 외	지학사	2014	251

6) 제시문 [바]

제시문 [바]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일부로서, 이념적인 노력의 한계에 부딪힌 후 본래의 현실 공동체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잡지 못한 채 결국 제3국행을 선택한 전쟁포로 이명준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명준의 고뇌는 자신이 믿었던 유토피아적 사상에 대한 회한, 그것이 현재의 세계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오는 한계 인식, 그리고 그와 같은 간극 사이에서 헤매는 '난파자'들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리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결국 어떤 것도 택하지 못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포기한 채 중립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개인'으로서 갖게 되는 절망감을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문학	권영민 외	지학사	2014	396-397
	고등학교 문학 Ⅱ	권영민 외	지학사	2012	355-359
	고등학교 문학 Ⅱ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2012	309-316

7) 문제 3

[문제 3]은 수험생들에게 조세제도와 관련한 간단한 소개문을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조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세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한 경기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시문은 이중에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의 경제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3번 문항은 이 제시문과 관련하여 고소득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서 국가의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사례를 가상적인 국가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적용 교육과정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김종호 외	도서출판 씨마스	2014	78

2. 문항

문항 1 – 문항

1. 제시문 [가]~[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백인에 대한 태도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태도를 대조하시오. [20점]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일본 및 국제 질서에 대한 시각을 대비하여 논하시오. [20점]

문항 1-1 – 출제의도 및 해설

제시문 [가]는 백인이 인디언을 침탈하던 상황에서, 그리고 제시문 [나]는 을사보호조약 직후 일본의 침략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상이한 맥락의 두 제시문을 면밀하게 읽고 패배의 상황 하에서 강자 내지 가해자에 대해 취한 주체의 태도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독해 및 분석 능력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논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표현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항 1-1 – 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1-1	* 문제와 관련한 제시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 강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한 파악	5
	* 백인에 대한 태도 - 패배 인정 - 동일한 운명공동체임을 지적, 포용	5
	* 일본에 대한 태도 - 패배 불인정 - 목숨을 건 투쟁 선언, 도덕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조상, 만물, 서구 열강의 지지	5
	* 형식 -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표현력, 분량 배분	5

문항 1-1 – 예시답안 및 답안 분석

1) 예시답안

제시문 [가]와 [나]에서 주체는 모두 강자에 의한 패배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제시문 [가]에서는 백인이 홍인의 땅을 강제로 구입한 후 그들을 보호구역으로 보냄으로써 종국적으로 부족의 멸망까지 예견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인해 종묘사직이 문을 닫고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는 위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강자 또는 가해자인 백인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제시문 [가]와 [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에서 홍인은 백인들의 힘의 우위로 인한 패배, 그리고 종국적으로 부족의 멸망까지 인정하면서도, 백인들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유한성을 기반으로 동일한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신적 존재 앞에서 결국 하나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패자가 오히려 승자를 포용하는 대범한 관용까지 감지된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침략의 주체이자 가해자인 일본의 침략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세 성리학적인 근왕적 군신관에 입각하여 목숨을 건 투쟁을 결의하고 있으며, 도덕적 이

상주의에 따라 조상과 만물이 이를 지지해 줄 것으로 굳게 믿으며, 심지어 서구 열강들도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처럼 두 제시문에 나타난 백인과 일본에 대한 입장은 강자 내지 가해자를 보는 시각과 대응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가]와 [나]에 제시된 백인과 일본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잘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먼저 답안에서는 두 제시문이 모두 백인과 일본은 모두 강자 내지 가해자이며, 글쓴이는 패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강자인 백인과 일본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경우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백인에 대해 적대적인 투쟁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대신 포용의 자세로 동일한 운명 공동체이자 한 형제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반면에 제시문 [나]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근왕론적 입장에서 도덕론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을 주장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문항 1-2 – 출제의도 및 해설

본 문항은 곽종석의 상소문과 기미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일본과 국제 정세에 대한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제시문에 대한 면밀한 독해 및 분석 능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양 주장에서 공히 제국주의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역사적 한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문항 1-2 – 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1-2	* 일본 - 제시문 [나]: 일본 지배 부정, 근왕론적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 - 제시문 [다]: 일본 지배 부정, 일본에 대한 원망, 단죄보다는 화해	5
	* 국제정세 - 제시문 [나]: 만국공법과 도덕적 의리론에 기반한 서구 열강에 대한 신뢰 - 제시문 [다]: 정의, 인도, 양심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	5
	* 한계 논의 -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간과	5
	* 형식 -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표현력, 분량 배분	5

문항 1-2 – 예시답안 및 답안 분석

1) 예시답안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글로서, 제시문 [나]는 1905년 을사조약 직후에, 제시문 [다]는 1919년 3.1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제시문에서는 모두 일본의 침략을 기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의 자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 왕과 신하가 함께 외적을 물리치고 종묘사직을 수호하자는 근왕론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도덕적 의리론을 중심으로 한 중세 성리학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일본의 배신과 해악은 인정하지만 일본에 대한 원망이나 단죄보다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더 시급함을 내세우며 나름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제시문 [나]와 [다]가 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는 입장을 달리하지만,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제시문 [나]에서는 만국공법에 기반하여 영국, 미국, 독일 등 서구 열강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낙관적 기대의 이면에는 도덕적 이상주의가 깔려 있다. 제시문 [다]에서도 인류는 공통적으로 옳은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당시를 정의, 인도, 양심을 기반으로 한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시문 [나]와 [다]에 제시된 이러한 인식은 열강이 견지하고 있던 제국주의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 인도, 양심과 같은 도덕률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침탈을 도모하는 제국주의 국가 주도의 당시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일본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2)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나]와 [다]에 제시된 일본에 대한 대응 태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두 제시문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나]에서는 종묘사직의 수호라는 근왕론적 관점에서 투쟁을,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본과의 화해를 도모하려 했다는 차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인식 면에서는 제시문 [나]와 [다]가 모두 도덕적 이상주의를 기반으로 서구 열강과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한 투쟁 내지 독립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제시문이 모두 당시 제국주의의 본질을 간과했다는 인식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논제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문항 2 – 문항

2.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개인에 대한 입장을 대조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이명준의 선택을 평가하시오. [30점]

문항 2 – 출제의도 및 해설

이 문항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서로 다른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광장』에서 드러나는 이명준의 개인적 선택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정치철학에서 '개인'의 자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크게 보아 본연의 존재로서 개인의 선택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와, 개인이 처한 공동체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동체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이명준의 중립국행 선택에 대한 평가 또한 나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문학작품 속에서 드러난 전쟁포로의 고뇌와 선택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달리 평가받을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문항 2 – 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2	*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핵심 내용 정리 - 제시문 [라]: 자유주의, 근대사회, 신분제도를 넘어서기 위한 목적, 개인을 그 자체로 존중 - 제시문 [마]: 공동체주의, 정체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 공동체의 유산, 결정, 도덕	10
	*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이명준 선택 평가 - 제시문 [바]에 표현된 이명준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정리 -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이명준의 선택 지지: 근거 포함, 또는 - 제시문 [마]의 입장에서 이명준의 선택 비판: 근거 포함	15
	*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의 배분	5

문항 2 – 예시답안 및 답안 분석

1) 예시답안

제시문 [라]는 근대의 자유주의 사조가 과거의 인간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법적 기본권의 시각에서 인간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개인의 선택은 그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자유주의의 핵심을 형성한다. 이에 비해 제시문 [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관념이 중요하기는 해도 그가 속한 공동체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덕목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도 존재할 수 없기에 개인의 사고와 선택은 언제나 공동체의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곧 도덕적인 것이라는 공동체주의의 주장인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을 바탕으로 할 때,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이명준의 선택도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명준의 선택은 배신자의 그것과도 같다. 이명준은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리고 '항구'로 비유되는 지금의 공동체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한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의 존재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시문 [마]의 입장은 이명준의 선택에 대하여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제시문 [라]의 입장은 개인을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와의 관계로 인해 고민하던 이명준이 스스로 중립국행을 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외부의 강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마]의 입장은 이명준의 선택을 적극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

2) 답안 분석

이 답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조하여 각각의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양자의 시각에서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이명준의 개인적 선택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을 '대조'함으로써 양대 시각의 차이점을 돋보이도록 하고 논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답안에서는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를 놓칠 경우 이명준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 및 갈등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답안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이 답안에서는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입장이 각각 이명준의 선택을 지지 및 비판하는 양 극단으로 나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왜'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적절하게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의 의도를 잘 간파하고 있다 하겠다.

문항 3 –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조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고소득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고소득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은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게 된다.

1) E국은 A와 B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나라이다. A의 소득은 400원, B의 소득은 100원이다. 아래 E국의 누진세율표를 이용하여 A와 B 각각의 소득세를 산출하시오. [10점]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세금으로,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 소득구간	누진세율
200원 이하	10%
200원 초과~500원 이하	20%
500원 초과	30%

2) E국의 전체 소득에서 두 국민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E-계수'라고 하자. 소득 분포의 불균등과 관련하여 E-계수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10점]

3) E국의 정부가 A와 B로부터 걷은 소득세 수입 전액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B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이전 지출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소득세 납부 이전 E-계수와, 소득세 납부 및 이전 지출 이후의 E-계수를 각각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비교하시오. [10점]

문항 3 – 출제의도 및 해설

조세는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제시문에 나와 있듯이 조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에 누진세 등을 통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문항은 이러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민이 두 명인 가상의 국가 E국을 통해 예시하고자 하였다. 보통 일국의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지니계수 등의 지수를 통해 파악한다. 본 문항에서도 지니계수와 유사한 'E-계수'라는 소득분배 형평성 지수를 제안하고 이를 가상의 국가인 E국의 소득불균등 정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수험생은 'E-계수'의 정의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계수가 어떻게 소득분배의 균등성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누진세 및 이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지 'E-계수'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3 – 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3-1	* 이 문제는 누진세를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A 및 B에 대해 각각 60원 및 10원의 해답이 제시될 수 있다.	10
3-2	* E-계수가 높아지면 소득분배 불균등이 개선된다는 의미라는 것과 0%는 완전 불균등, 50%는 완전 균등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이해한다.	10
3-3	* E-계수가 20%에서 32%로 개선되면서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개선되었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10

문항 3 – 예시답안 및 답안 분석

1) A의 소득이 400원이므로 제시된 누진세율표에서 '500원 초과'를 제외한 두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원×10% + 200원×20% = 60원의 소득세가 산출된다. 한편 B의 소득은 100원이므로 '200원 이하' 구간을 이용하여 100원×10% = 10원의 소득세가 산출된다.

2) E-계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짐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0%일 때에는 '완전 불균등'을, 50%일 때에는 '완전 균등'에 해당한다.

3) 먼저 소득세 납부 이전의 E-계수를 구하면, 100원/(100원 + 400원)= 20%가 된다. 다음으로 소득세 납부 및 이전 지출 이후의 E-계수를 구한다. 소득세 전액이 B에게 이전되므로 총 소득 500원은 변화가 없다. B의 소득은 100원 - 10원(소득세) + 70원(이전 지출) = 160원이 된다. 따라서 E-계수는 160원/500원 = 32%로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E국의 소득분포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